

ICID 제54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20차 유럽지역회의 참가기

최정대

장원대학교 명예교수

2003년 9월 13일 허유만 KCID 회장을 비롯한 권순국, 이근후, 김태철, 김주호, 김채수, 김영득, 필자 등 8명은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제 54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20차 유럽지역회의(54th Executive Council Meeting and 20th European Regional Conference of ICID)에 참석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몽펠리에(Montpellier)로 출발하였다.

ICID 집행위원회의는 일요일(9월 14일)부터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필자는 미국 농공학회에는 거의 매년 참석하며 논문도 발표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였지만 ICID 집행위원회 회의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모든 회원들이 자신이 속한 위원회, 워킹그룹 등에서 활발하게 의견도 개진하며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일요일 오전에는 필자가 특별히 참석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나 워크숍이 없어 몽펠리에 중심가의 유적보전지역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약 1세기 경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비교적 역사가 짧다(?)는 몽펠리에의 중심

부는 말 그대로 고색 찬란한 건물들이 원형대로 보전되고 있는 것 같았다. 건물들 모두가 역사를 느끼게 할 정도로 오래되었고 또 아름답게 보였다. 미국에서 보아왔던 도심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유럽의 오랜 역사와 유럽인들의 자부심을 보는 것 같았다. 고전이 고스란히 보전된 인근에는 최첨단 쇼핑센터와 광장이 있어 신구의 조화도 새로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광장에 늘어난 노천카페도 매우 인상 깊었으며, 조직적으로 계획된 넓은 도심 공원은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일요일 오후에는 아시아 지역 워킹그룹(Asian Regional Working Group) 회의를 참관하였다. 아시아 지역 워킹그룹은 아시아 지역의 관개배수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전문가 보고와 토론을 통하여 매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며 ICID 집행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개최되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은 주최측에서 환영리셉션을 베풀었는데 한국에서의 리셉션과는 차원이 다른 간단한 리셉션이었다.

월요일(9월 15일)에는 ICID 집행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필자로서는 참관할 수 있는 워



킹그룹이나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ICID에서 추천하는 니마(Nimes), 우제스(Uzes)와 로마 시대의 수로교(The Pont du Gard) 등 고적답사 현장견학에 참가하였다. 니마에서는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먼저 세워진 2만명이 참관할 수 있는 앰피디이터(당시의 니마 인구는 5만 5천명이었다고 함), 2000년 된 신전, 그리고 오래된 성당과 건축물을 버스로 돌아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다. 우제스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영주가 통치하던 대표적인 마을이었다.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 성당과 영주의 저택이 있고 주변으로 민가가 밀집하여 건설되었다. 우제스에는 물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주변에 포도밭이 많아 포도주가 유명하고 흔해서인지 우제스에서의 점심식탁에는 물과 함께 한 주전자(pot)의 포도주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어 여행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로마시대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제스는 참으로 인상 깊었다.

우제스는 물이 풍부한 작은 마을이었던 반

면에 니마는 로마제국의 중요한 거점도시로 성장하였지만 물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물이 풍부한 우제스에서 니마까지 총 연장 50km의 수로를 건설하였다. 이 수로는 1일 송수량이 35,000m³에서 40,000m³(초당 약 0.4m³)에 이르는 대형수로였으며, 수로교의 최대 높이는 48.77m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며, 아치교의 맨 꼭대기 3단 아치에 만들어진 수로는 폭 1.4m, 높이가 1.9m이었다. AD 50년경에 건설되었다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였으며 당시 로마인들의 건축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였던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화요일(9월 16일)의 오전에는 '물 부족지역에서의 관개농업' 워크숍에 참석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접했으며, 점심때는 일본 관개배수위원회의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오후에는 필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분과 워킹그룹에서 권순국 교수님 후임으로 신규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일본의 관개배수위원회에서는 벼농사의 다원성 및 공익성을 정량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면이 역력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함께 이

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요일(9월 17일) 오전에는 제20차 유럽지역회의 개최식에 참석하여 초청연설 등을 경청하였다. 몽펠리에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의 물 관리 및 배분 시스템을 감명깊게 들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서도 과연 이들과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물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리 기관이지만 세계의 많은 국가와 활발한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과연 세계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이들과 같은 국제협력 정신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수요일 오후에는 KCID가 후원하고 박상현 이사가 위원장인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목요일(9월 18일)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양도시인 팔라바스(Palavas-les-Flots)를 돌아보았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넓은 모래언덕이 형성되어 있었고 팔라바스는 모래언덕에 건설되었다. 모래언덕의 내해는 해수가 유통하는 넓은 라군(lagoon)으로 다양한 생물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생물상을 설명해 주는 관광코스도 개발되어 있었다. 항상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프랑스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해변을 따라 걷기도 하고 지중해에 발을 담그고 남부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팔라바스의 높은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하며 점심도 하고, 연안 여객선을 타고 1시간 정도 바다로 나가기도 하였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시간가는 줄 모르며 망중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필자와 같이 항상 일에 쫓기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더

할 나위없는 좋은 시간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소주가 준비되듯이 몽펠리에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준비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금요일(9월 19일)은 ICID에서 마련한 테크니컬 투어가 있었다. 투어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 지역의 농업과 도시의 용수공급 물관리 자동화 시설 견학, 프랑스의 농업연구기관



인 세마그레프(Cemagref)의 스프링클러 시험장, 그리고 500 ha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의 관개시설을 둘러보았다. 물관리 자동화 시설은 SCP라는 반관반민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다. 물관리 자동화 시설은 250여개의 수문, 수심, 유량등을 측정하는 자동측정지점의 자료를 매 15분 간격으로 텔리메트리로 전송받아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자동화 시설이 1970년대에 이미 완성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술의 진보는 이들의 물관리 자동화 기술을 세계의 19개국에 수출하며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는 것 같았다. 농업분야의 물 사용량은 여름의 피크시에는 65%, 보통의 경우에는 30%를 사용하고 있으나, 물값은 총사용량의 10%만이 농업부분에서 받는다고 했다. 프랑스의 농민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로 물값면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마그래프의 스프링클러 시험장에서는 대형 스프링클러(water gun)의 관개성능시험, 점적관개의 관개효율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하며 농업용수의 절약과 효율적인 관개방법을 연구하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도 프랑스와 같은 농업국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스프링클러를 비롯하여 농업공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연구소 하나 없다는 사실에 씁쓸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다. 500 ha 규모의 개인 농장에 2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지원하며 자신의 농장에 적합한 첨단정밀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프랑스의 농민을 보았을 때는 정말로 뒤통수를 한대 맞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부에 바라기 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며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은 보전하면서도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프랑스 농민의 노력은 우리나라 농민이 본 받아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에는 ICID 회의 참석자를 위한

환송연이 몽펠리에 근처의 오래된 성당에서 있었다. 너무 오래되고 낡아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는 성당이었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특이한 점은 성당의 이름이 Abbaye de Valmagne이었고 성당의 메인 홀 벽에는 높이 약 3 m, 길이 약 4 m의 초대형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통이 6개나 유물로 남아 있었다. 일부의 사람들은 포도주의 시초는 성당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포도주의 판매는 성당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환송연에서 사용된 포도주의 이름의 성당의 이름과 같은 Abbaye de Valmagne 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환송연을 끝으로 일요일부터 진행되었던 제54차 ICID 집행위원회의와 제20차 유럽지역회의의 막은 내려졌다. ICID 회의는 학문적 전문성보다는 정책적 배려를 많이 하는 준 학술적인 회의로 인식이 되었으며, 새로운 경험과 문화와 기술을 접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